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1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 인생 길의 등불이십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빛 안에서 걷게 해주십시오.
 거짓과 음란과 폭력에 끌리는 우리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때묻은 영혼을 부끄러워하며 울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당신의 부르심 앞에 '예'라고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에는 민첩하고, 용서에는 끈질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17:7-8
♠ 교 독 문	42. 마태5장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최인환 선생 II. 구성실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 361. 주의 주실 화평
성경봉독	I. 살전 5:16-18
	II. 민 6:22-27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오늘을 위한 기도
	II. 축복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78.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1,3)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가
든지 복의 매개자가 되려고 애쓰십시오. 주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해주실 것입니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
며 살겠습니다. 때때로 덧거친 세상살이에 지쳐 비틀거릴
때,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평화를 향한 행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15)	로마서 강해(64)
기도 : 김중수 권사	기도 : 차혜심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엄혜영 선생 이용한 장로	다함께 문만실 집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 극 배상순	곽권희 정진경
	헌금위원	윤정덕 김준호 한상익 문복순	최숙화 오성희

영혼의 장소

우리 부족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더 높은 힘과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썼다. 우리 부족 사람들은 과거에 정식 교회들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썼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정화시켰다. 우리는 ‘깨끗한 손들’을 갖고 그 ‘위대한 존재’ 앞에 서고 싶다고 얘기한다. ‘깨끗한 손들’이 의미하는 것은 깨끗한 태도, 깨끗한 마음, 깨끗한 인생, 또는 깨끗한 생활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의식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금식과 땀내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한 상태로 그 ‘위대한 존재’ 앞에 서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더 높은 힘’에 어떻게 느낌들을 전하는가? 그 비밀은 겸손에 있다. 움집(인디언 부족들이 정화 의식을 위해 만든 것인데, 그들은 불에 달구어진 돌을 움집으로 옮겨놓고 그 위에 물을 뿌려서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낸다. 그 속이 뜨겁기 때문에 그들은 땀을 흘리며 자기들 속의 많은 독소들을 제거한다. 이 의식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다)의 출입구는 매우 작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 기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곳의 첫 번째 교훈이다. 즉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위대한 존재’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는 데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소년이 기도의 영감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것은 저 아름다운 산과 나무와 풀과.....’ 어린 소년은 그렇게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저는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파벳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파벳을 외는 동안 정말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것을 단어들로 만 들어서 아름다운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른다 해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분’에게 전달할 수는 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를 할 때는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우리는 ‘땀의 움집’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멋진 문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 ‘땀의 움집’ 의식을 거행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긴 기도를 올리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 움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한 기도를 갖고 걸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너무 길면 그것이 무언가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도 자신의 기도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기도를 짧게 해서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 있게 하라. 그런 후에는 밖에 나와서 삶을 통해 그런 기도를 실천으로 옮기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에게 가는 대화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조물주는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는 종종 우리 부족의 노인들이 어떤 의식에 참석해서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들곤 했다. 그분들의 영어 실력이 아주 짧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재앙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 어린아이들이 줄지에 고아가 된 어떤 나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누군가의 마음에 무언가 좋은 것을 넣어서 불쌍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기 음식이 있다. 네가 갖고 놀 수 있는 작은 인형도 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면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영혼은 거리나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며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작용한다.

(베어 하트, 『인생과 자연을 바라보는 인디언의 지혜』 중에서)

▣ 마/음/으/조/읽/는/글

불꽃

불꽃은 손으로 가리고 있으면 펠러이지 않고 가만히 꽃꽃하게 선 채 빛을 낸다.

이것은 아무리 광명에 찬 메시지라 하더라도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에 속절없이 내맡겨져 있지 않도록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 이름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각자 안에서 비단 믿음만이 아니라 생활방식에 있어서도 보호를 필요로 한다. 거기에 규범성과 항구성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빛은 일정한 주위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교적 삶은 어떤 엄격성이 없이 수행될 수 없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결점들과 죄들을 용납하고 있다(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자이시랴). 그러나 어디까지나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만, 즉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좋지 않은 일로 인정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렇다.

고귀한 인간성은 깨끗한 생활태도를 전제로 한다. 기울어진 초처럼 아무 쪽으로나 녹아 흘러내린다면, 곧장 끝장이 나고 말리라.

(자끄 뢰브, 『묻혀 있는 보물』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조관행 홍선희 이소순 박정숙 윤성종 김윤정 박범희

월정헌금:

윤성종 김윤정 박범희

감사헌금:

김중수 이순정 김애경 박성수 하재두 이인섭 백혜숙 최주환 문복순
김정섭 김철수 유명남 장혜숙 윤석철 김순복 권미정 무명2

생일감사헌금: 안종일 박경선

신년감사헌금: 17가족 893,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섬	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의무금봉헌** : 오늘 예배 중에 의무헌금을 봉헌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자랄 것입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속장인도자교육** : 감리교회는 속회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속장과 인도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1월 12일, 13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소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구역회** :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는 구역회가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5. **재무부 회의** : 오늘 오후 집회 후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재무부원들은 모두 참석해주시요.
6. **남선교회 계삭회**: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1월 13일 오후 6시에 정동교회에서 열립니다.
7. **1인1구좌 갖기 운동** : 우리 교회가 힘써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인걸 권사님이나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평화는 먼저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화를 내지 않도록 애를 써보십시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